

수능 1등급 올리기 프로젝트 학생 성적 향상에 큰 기여

전북교육청, 참여학생 1485명 결과 분석... 88% 이상 성적 향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5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추진한 '수능 1등급 올리기 프로젝트'가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80일간 운영된 '수능 1등급 올리기 프로젝트'에는 도내 43개 일반개교, 76개 반, 1,613명이 참여했다.

이 프로젝트는 대입 수능 대비 맞춤형 학습 지원과 실전 모의고사 지원을 통해 고등학생들의 학력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프로젝트 참여 학생중 1,485명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88% 이상이 모의고사 결과보다 한 등급 향상 또는 목표 등급에 근접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영어와 사회탐구 과목에서 각각 75.0%와 59.0%로 등급 향상 효과가 두드러졌다. 이어 과학탐구 51.4%, 국어 46.0%, 수학 43.2%가 향상됐다.

목표 등급 근접 및 유지를 포함하면 과목별로 국어 83.7%, 수학 85.8%, 영어 97.3%, 사회탐구 82.7%, 과학탐구 81.5%가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상위권 학생뿐만 아니라 참여 학생 모두가 전 영역에 대해 목표를 세우고 80일간 매진해 이뤄낸 결과라 할 수 있다.

학생이 직접 정한 수능 영역의 등급 향상 목표 계획에 따라 수능 성적 향상을 위한 개별 학습 계획을 점검하고, 일대일 학습 멘토링 등의 학생별 맞춤형 수능 학습을 지원한 것이 주요했다.

특히 수능 전까지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EBS 파이널 모의고사 등 실전 모의고사 시험지를 제공해 학생들은 실제 시험 상황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시간 관리 훈련을 진행했다.

학생별로 매칭한 멘토링 교사를 통한 학습관리도 중요한 과정이었다. 멘

토링 교사는 자기주도학습 시간 동안 학생과 함께하며 수능 성적 향상에 집중하도록 돕고 꾸준한 학습관리를 통해 수능시험 당일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험생의 맞춤형 학습을 지원했다.

프로젝트 종료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참여 학생의 90%가 "학습 전략과 실전 대비에 큰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으며, "수능 시험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치른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어 좋았다"는 응답도 많았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2025학년도에는 참여 학교와 학생 규모를 확대하고, 추가적인 선택 과제를 도입해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높일 예정"이라며 "지역 내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대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학생 맞춤형 학력 향상을 위해 더욱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6~27일 부안 소노벨 변산에서 '2024 직업계고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전북 직업교육 발전 방안 모색

전북교육청, 직업계고 성과공유회 개최... 학교별 우수사례 발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26~27일 부안 소노벨 변산에서 '2024 직업계고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도내 직업계고 32개교 교직원과 교육청 업무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한 이 행사는 올해 직업계고의 우수한 교육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 전북 직업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행사는 학교별 직업교육 우수사례 발표와 학교 경영사례 특강, 직업교육

유공자 표창 등으로 진행됐다.

먼저 28일 오전에는 △직업교육혁신지구 △미래역량강화사업 △직업계고 인식개선 및 홍보 △전공심화동아리 운영 △산학일체형도제학교 운영 학교의 우수사례 발표가 있었다.

오후에는 △글로벌 인턴십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현장실습 및 취업 △특성화고 환경 개선(교과교실제) △직업계고 학점제 △직업계고 재구조화 등을 주제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전북 직업교육 12개 주요 사업의 우

수사례를 발표, 공유함으로써 학교간 협력과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기회가 됐다.

전문가 특강을 통해 전북직업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은태욱 장학관이 직업계고 취업활성화 정책을, 이라공업고 김주영 교장이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추진 과정을, 전북하이텍고 송현진 교장이 전북글로벌특성화고 추진 과정을 각각 설명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올 한해 학생지도와 취업지도에 애써주신 모든 교육가족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우리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졸업 이후에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웨어러블 차세대 동력 압전 복합재료 매커니즘 규명

전북대 김성륜 교수팀, 압전 재료 중형비·성능 간 매커니즘 이론적으로 규명

웨어러블 기기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압력을 전력으로 변환하는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유연성과 경량성이 요구되는 웨어러블 기기에 적합한 압전 복합재료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지금까지 압전 복합재료의 성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압전 재료와 나노구조가 연구되어 왔으나 효율 향상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왔고, 효율 정제 극복을 위해 나노구조에 따른 압전 복합재료의 성능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규명도 필요했다.

이러한 압전 복합재료의 효율 향상을 위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 연구 성과가 전북대학교 김성륜 교수팀(유기소재섬유공학파)으로부터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압전 재료의 중형비(aspect ratio)와 성능 간의 매커니즘을 이론적으로 규명한 것이다.



김성륜 교수



김민경 석사과정

김 교수팀은 공정 조건을 제어해 중형비가 다른 나노구조의 압전 재료를 제조해 중형비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중형비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 전류는 650%, 최대 전압은 516% 증가함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실험 결과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비교한 결과, 중형비가 높은 나노구조가 더 큰 변형을 유도해 압전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매커니즘이 밝혀졌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중형비가 높은 압전 재료가 스마트 기기의 효율적인 작동에 유리함을 실험과 이론으로 동시에 입증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Enhanced piezoelectricity of composite piezoelectric nanogenerators by varying the aspect ratio of zinc oxide nanoparticles'라는 제목으로, 세계적인 에너지 공학 저널인 'Energy' (Impact Factor 9.0, JCR 상위 3.6%)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에는 강민경 석사과정(제1저자)과 철원 플라스마산업기술 연구소 장지운 박사(공동 교신저자)가 함께 참여했으며, 나노소재 기반 에너지 하베스터 개발 및 글로벌 탄소중립 기술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김성륜 교수는 "압전 복합재료의 정제된 효율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돌파구 마련을 위한 이론적 초석을 마련했다"며 "후속 연구를 통해 압전 복합재료의 효율을 최근 주목받고 있는 마찰전기 복합재료의 효율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제1저자로 연구를 주도한 강민경 석사과정은 "석사과정 중에 우수한 연구 결과를 낼 수 있어 기쁘고, 이번 연구가 앞으로 압전 복합재료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지도교수님과 소중한 도움을 주신 다른 저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RS-2023-00304743),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2016R1A6A1A03013422)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김재훈 기자

/김재훈 기자

우석대, 5년 연속 도내 4년제

일반대학 중 취업률 '최고'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전북지역 4년제 일반대학(졸업생 1000명 이상) 중 취업률에서 5년 연속 최고 자리를 차지했다.

2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에 따르면 우석대학교의 취업률은 69.9%로, 전북지역 4년제 일반대학(졸업생 1000명 이상) 평균인 63.2%보다 높았다.

우석대학교는 △2021년 60% △2022년 65.5% △2023년 66.2% △2024년 69.9% 등 최근 4년간 취업률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우석대학교의 이 같은 성과는 교내 대학일자리본부와 진로취업지원센터, IINC 3.0 사업단, 창업지원단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혁신과 학생취업지원 시스템 등을 강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우석대학교는 취업을 증가를 위해 맞춤형 전문상담부터 진로교육, 산학협력 프로그램 등 학생들의 현장 경험과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졸업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 밖에도 지역 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원주=염재복 기자

전주문화재단, 김해문화관광재단

관계자 팔복예술공장 초청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과 (재)김해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최석철)의 문화예술 교류사업 업무협약에 따른 첫 행보로, 김해문화관광재단 관계자 40여 명이 지난 27일 전주시를 방문해 팔복예술공장을 견학했다.

이번 방문은 두 재단의 협약 사항인 '지역 간 문화자원 교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김해문화관광재단 관계자들은 팔복예술공장의 복합문화공간 운영사례와 지역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뒤 전주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체험했다.

팔복예술공장은 창의적인 공간 활용과 예술가 중심 프로그램으로 전주시의 문화예술 거점 역할을 하고 있어 방문단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북은행,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27일 전북교육청 창조나래 회의실에서 '전북에듀페이 지원 협력 기부 협약'을 체결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전북은행-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에듀페이 지원 협력 기부협약 체결

전은, 2000만원 기탁... 2026년까지 총 7000여만원 기부 예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과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명규)는 지난 27일 전북교육청 창조나래 회의실에서 '전북에듀페이 지원 협력 기부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전북에듀페이카드 운영사인 전북은행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전북은행은 전북에듀페이카드 바우처 사용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에듀페이카드 운영 협약 기간 동안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학생 교육복지에 동참하기로 했다.

전북은행은 이날 우선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학생 이름으로 2,000

만원을 기탁했다. 전북에듀페이카드 운영 기간인 2026년까지 3년 동안 총 7,000여만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김태현 부행장은 "전북에듀페이카드 운영사로서 전북에듀페이를 매개로 나눔과 베품의 학생 교육복지에 동참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이번 협약으로 전북에듀페이 지원 사업이 기부 동참학생 교육복지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라도 전북에듀페이 사업이 우리 학생들의 학습 및 진로를 준비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교육청, 학력향상도전학교 성과보고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27일 베스트웨스턴플러스 전주에서 '2024 학력향상도전학교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2024년 학력향상도전학교를 운영한 중학교 35개교, 고등학교 53개교 업무담당자와 2025년 신규 학력향상도전학교를 운영하는 중학교 18개교, 고등학교 8개교 업무담당자 등 140여 명이 참여했다.

신규 도전학교와 2년차 도전학교 신

창교 모두 2025년 도전학교를 알차게 꾸려갈 수 있도록 의미있는 사례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학력향상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성과보고회에서는 도전과제별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민성중 김민지 교사는 학습지원 앱 올리를 연계해 노벨문학상 수상작품(한강 작가의 '흰') 읽기 문해력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독서 챌린지를 운영했던 사례를 발표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김재훈 기자

이차전지 인재 양성 위한

전공역량강화 산업체 특강

전주지전대학(총장 조희천)이 이차전지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7일 전주지전대학 혁신융합캠퍼스에서 '전공역량강화 산업체 특강'이 열렸다. 이번 특강은 이차전지소재부품과가 주관하며, 산학연 협력의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전주지전대학 학생들에게 최신 기술 동향을 소개하고, 실무 중심의 강연을 통해 전공 역량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CO융합섬유연구원, 전북대학교 등 지역의 대표 연구 기관과 함께 진행되며, 이차전지소재부품과 재학생과 교직원도 참여했다.

전주지전대학은 이번 특강을 통해 산학연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경기도 1인가구 정책제안 공모 '최우수'

전북대 김윤수 학생, 1인가구 전입신고 시

1인가구 정책 안내 패키지 제공 아이디어 제안



전북대학교 김윤수 학생(공공인재학부)이 경기도가 주최한 '1인가구 정책제안 공모전'에서 1위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는 1인가구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할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개최했다. 지난 8월 한 달간 전국에서 접수된 총 113건의 정책 아이디어 중,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최종 8건의 우수작이 선정됐다. 심사 기준은 적합성, 창의성, 완성도, 활용성 등이었다. /김재훈 기자

김윤수 학생의 제안은 '1인가구 전입신고 시 1인가구 정책안내 패키지 제공'이라는 주제로, 전입신고 시 관할 관공서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을 통해 경기도 및 해당 시군에서 시행 중인 1인가구 지원 정책을 안내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1인가구가 필요한 정책 정보를 손쉽게 받아 다양한 지원사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윤수 학생은 "1인가구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국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정책에 관심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김재훈 기자